



4월의 푸른숲에 희망의 나무를 심자

제 61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푸른숲선도원들은 우리강산 푸른숲에 희망과 미래의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에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식목행사에 전국의 청소년을 대표하여 푸른숲선도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주소재의 상풍초등학교 5,6학년 54명의 푸른숲선도원들이 식목행사에 참가하여 대통령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으며 숲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제61회 식목일행사는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
사슴마을에서 진행되었으며, 2ha(6000평)에
소나무(5년생 4500그루, 2년생 3000그루)를 심었습니다.